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 히브리서, 7a

세션,

히브리서 7:1-8:13: 더 나은 신권, 더 나은 언약(1부)

© 2024 데이비드 데실바 및 테드 힐드브란트

히브리서 7:1~10:18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재에 대한 길고 어려운 주장을 제시하며, 저자가 2장 17, 18절에서 이미 제기한 주제와 4장 16~5절 10절에서 다시 제기한 주제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 길고 중심적인 부분에서 저자는 우리가 그의 주장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제사장 계통에 이름을 받을 자격을 갖추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멜기세덱 계통에 제사장이 오게 된 것의 옛 언약과 그 언약을 유지했던 제사장직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에 제사장이 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세 번째이자 중요한 질문은 이 사건을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의 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중재가 아닌 예수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7장과 8장은 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가 이 계통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창세기 14장에서 알려진 멜기세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창세기의 멜기세덱 이야기가 멜기세덱 계통의 이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이끌어냅니다.

저자는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 계통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계통임을 보여주는 데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유대교와 유대-기독교

문화권 내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명예로운 직책을 맡았던 아론의 제사장 계통의 긍정적인 평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고대 수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는 조상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의 존엄성과 대비되는 레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계통의 존엄성과 이 두 사제 전임자로부터 유래한 두 계통의 상대적 존엄성을 반영할 것입니다. 개인을 칭찬하는 또 다른 전략은 그 사람을 가치 있는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미 아들을 천사와, 아들을 모세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 전략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는 이제 레위 대제사장에게 따르는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강조함으로써 아들의 명예와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의 가치를 계속 강조합니다 .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누리는 혜택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더 큰 혜택을 탐구합니다 . 그러나 그는 또한 예수를 이 비레위계 제사장직에 임명한 것의 율법 자체인 토라에 대한 결과를 탐구합니다.

8장 서두에서 저자는 9장과 10장을 지배할 주제를 소개하는 요약 진술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신 더 나은 장소, 하늘 자체, 하늘의 거룩한 장소, 그리고 예수께서 드리는 희생의 우월한 본질, 즉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생명이 포함됩니다.

8장 후반부, 즉 7절에서 13절에서 저자는 신성한 경전에서 하나님의 획기적인 신탁을 낭송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예수가 이제 더 나은 약속에 기초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신성한 신탁을 찾습니다. 이 신탁은 또한 저자가 이 길고 어려운 단어에서 다루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제사장이 온 것은 옛 언약과 그 언약을 유지했던 제사장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시편 110편은 저자가 아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시편 110편 1절은 친숙한 본문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나 시편 110편 4절은 저자를 예수의 인격의 신비속으로 더욱 깊이 데려가며,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구절과 함께 일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탐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저자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데, 이는 유대인 경전에서 이 그림자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유일한 다른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읽습니다.

케돌라오마 와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물리친 후 돌아온 후에 소돔 왕은 사웨 골짜기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살렘의 멜기세덱 왕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저자가 이 인물과 이 에피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준비시켜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대로, 첫 번째는 의의 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저자가 멜기세덱과 그의 이야기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그는 특히 멜기세덱과 메시아로서의 예수 사이의 유사점을 찾습니다. 그는 이것을 7장 3절에서 간접적으로 지적하는데, 그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멜기세덱과 메시아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시사하는 이러한 유사점 중 일부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름과 멜기세덱의 칭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 자체로 메시아적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의 칭호인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한 필로의 취급에서 멜기세덱과 그의 칭호에 대한 유사한 번역을 발견합니다.

의와 평화는 둘 다 하나님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 6-7절을 보면 히브리 예언서에서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권위가 놓여 있고, 그는 놀라운 조연자,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로 불립니다. 그의 권위는 계속 커질 것이고,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는 끝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것을 세우고 지탱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은 특히 평화와 의로움 또는 정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동의어입니다. 이사야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의로움이 비옥한 밭에 거하리라. 의로움의 결과는 평화이고 의로움의 결과는 영원히 평화롭고 평온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예언서와 후기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문헌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과 직함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합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날의 시작도 없고, 삶의 끝도 없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저자가 창세기 이야기의 이러한 의미를 펼칠 때, 여기서 작용하는 원리는 성경의 침묵도 웅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의 혈통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그가 어느 부족에서 왔는지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 저자는 이러한 침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창세기의 저자가 멜기세덱을 오실 분의 유형,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자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단어는 특히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의 가계를 따르는 이 신권은 레위 신권의 자격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생물학적 혈통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이것은 아마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바빌로니아 유배 기간과 그 이후의 족보를 주의 깊게 보존한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내의 신권 씨족 내에서 자신의 혈통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주장이 확인될 때까지 성전 봉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 저자는 여기서 식별하는 멜기세덱의 나머지 특성에서 답을 추론하는데, 날의 시작도 없고 삶의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사제 계통을 정의하는 표식은 선재와 영원으로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아들을 위해 이미 확립한 것입니다 . 히브리서 1:1-4에서 그는 창조 이전에 창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아들의 존재에 대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0-12에서 그는 권위 있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아들이 물질적 창조가 해체되고 다가올 시대가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이미 추론했습니다.

설교자는 이것의 논증적 열매를 7장 후반부, 특히 7절 16절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께서 육적인 의식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삶에 근거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심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7장 23-25절에서 설교자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이 제사장의 끝없는 삶은 죽음이 계속 개입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은 항상 살아 있으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중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을 칭찬하는 고대 전략 중 하나는 그의 조상을 다른 위대한 인물과 비교하여 그의 조상이 실제로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7장 4-10절에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의미는 멜기세덱의 가계에 속한 제사장이 레위의 가계에 속한 어떤 제사장보다 더 큰 영예를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4절 서두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어지는 단락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브라함과 소돔 왕과 그들의 동맹군을 대적하여 결탁한 케돌라오멜 과 다른 왕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행위를 십일조로 해석합니다. 즉, 제사장 중보자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준 것은 이웃 왕에게 관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더 큰 지위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중재자로서 기능함으로써 그가 받을 만한 것을 그의 제사장에게 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레위의 아들들과 대조하게 합니다. 그가 기록한 대로, 레위의 아들들, 즉 제사장직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백성, 즉 자기 형제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오경에 나오는 여러 명령 중 하나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8:21.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십일조를 그들이 수행한 봉사, 즉 만남의 천막에서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소유물로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족보이며,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즉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교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혈통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약속을 가진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토라에 따른 규정과 달리, 명확한 혈통적 자격이 없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습니다. 요점은 레위 사람들이 특별한 혈통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동등한 사람에게서 십일조를 징수하는 반면, 멜기세덱은 혈통적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혈통이 전혀 없는 열등한 사람에게서 십일조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마치 날의 시작이나 삶의 끝이 없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단순한 필멸의 존재로부터 십일조를 받습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용문에서, 모순 없이, 하위 당사자가 상위 당사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의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물론, 저자는 듣는 사람들이 하위 당사자가 상위 당사자를 축복하거나 상위 당사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많은 경우를 정신적으로 괄호로 묶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인들은 왕을 축복하거나 축복을 기도하거나, 예배자들은 신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에서,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더 적은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매우 흔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모순 없이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의 한 단면입니다.

또한 그는 멜기세덱의 불멸과 레위 제사장들의 필멸성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필멸의 사람들, 즉 토라에 따른 여기의 마련에서 필멸의 사람들은 십일조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그는 살아 있다는 것이 증거됩니다. 이 경우, 불멸은 단순히 필멸자보다 우월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이 경우 필멸의 인간이 십일조를 받지만, 그 경우 그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십일조 를 받은 레위는 아브라함을 통해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아직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설교자는 자신이 여기서 약간의 은유적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고대인의 사고방식의 일부였을 정체성과 개성에 대한 집단적 개념을 잘 반영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창세기 14장의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 한 행동은 레위와 레위에서 내려온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제사장직은 이차적이며 궁극적으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중재에 의존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중재를 인정했습니다. 저자는 모세 언약과 수세기 동안 그 언약에 의해 승인되고 규제되어 온 레위 제사장직이 모두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와 새로운 언약을 위해 제쳐졌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예수를 대신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청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완벽함이라는 주제가 다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 섹션의 시작과 끝에 완벽함을 배치하여 강조하는데, 이를 포함이라고 합니다. 서두 구절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따라서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면, 백성이 이 제사장직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임명되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임명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7:19의 끝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과 7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 담론 전반에 걸쳐 저자에게 온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온전함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정화는 레위 제사장들이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예물과 제사를 바침으로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히브리서 9장 1절~10절). 이것은 7장 11절의 다른 단어에서 반영됩니다. 이 온전함은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의 양심을 정화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완벽함은 또한 궁극적인 영원한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토라와 그 제사장직이 예배자에게 작용하여 그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의 지상적 모델인 율법과 그 제사장직은 인간을 하나님의 실제 현존, 하늘의 성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구자로 들어오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영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7장 11절에 이르러 우리는 연대기적 암묵적 논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 왕은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관한 신탁을 전하는데, 그는 레위의 제사장 계통이 설립된 지 수백 년 후에 이 일을 합니다. 저자는 이것으로부터 레위의 제사장 계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더 최근의 본문인 시편 110편에서 새로운 제사장 계통을 선포한 것은 토라에 확립된 기존의 제사장 계통이 예배자들을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직과 모세의 율법 또는 시나이 언약의 이해된 상호 연결성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직의 존재에 근거하여 토라, 율법의 규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그들의 의식은 시나이 언약의 기능, 유지, 복구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은 관계를 복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다른 방식으로 신성한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할 때, 레위 제사장들은 그러한 메시지와 희생의 중재자였습니다. 또한 언약 또는 율법은 제사장직의 기초였습니다. 저자가 7장 끝에서 말하듯이, 율법은 약함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으로 임명합니다.

따라서 토라와 레위 제사직이라는 두 가지는 떼려낼 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12절에서 이것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제사직이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법도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자는 히브리서 8장의 결론에서 이것을 증거로 인용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율법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데, 즉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예수를 이 제사장 직분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급된 사람은 다른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 지파에서는 제단을 돌볼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분명하며,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 제사장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청중이 예수가 유다 계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거나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고 알고 가정하는데, 모세는 이에 대해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 계통에서 이 새로운 제사장직의 질서가 확립되고, 따라서 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규제하고 레위 제사장직에 의해 유지되는 율법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저자가 말했듯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자신이 신비롭게 나타나서 역사의 무대에서 날의 시작이나 생명의 끝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예고했던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께서 이 제사장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확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멜기세덱의 직분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구절은 항상 그렇게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상 14장 41절의 저자는 하스모네 왕조의 창시자인 시몬을 지도자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같은 언어로 언급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다음에 unti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 이 문구를 더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즉 육적인 계명에 따라가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힘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죽음의 권세를 넘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은 예수와 멜기세덱 사이에 일종의 가족적 유사성을 확립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나 육체적인 규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삶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자는 레위 제사장의 자격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혈통과 혈통에 연결된 육체적 자격에 기초하고 있지만, 예수의 제사장직은 질적으로 다르고 우월한 종류의 존재, 영원한 종류의 존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전에 주어진 계명은 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제쳐두어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으며, 더 나은 소망이 소개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주요 요점을 요약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레위 제사장직과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즉 완전함이라는 무거운 용어로 요약된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중재한 언약의 비효과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대안적이고

더 큰 제사장직의 질서에서 이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이 목표가 이제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더 나은 희망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새 언약이 이전 언약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좋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이나 언약의 신뢰성은 그러한 계약의 보증인의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7장 22절에서 말했듯이, 예수를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확립하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듯이, 맹세 없이는 아니었습니다. 맹세 없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맹세한 자는 그에게 말씀하신 분을 통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명령으로 예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저자는 마침내 여기서 시편 110편 4절의 그 부분을 낭송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주신 맹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618절에서 그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도망친 우리가 강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성한 신탁이며, 따라서 이 새로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만들어진 새 언약의 궁극적인 신뢰성입니다. 이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두 번째 보장은 예수께서 그의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듯이,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직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영원히 거하심으로 인해 중단 없이 제사장직을 유지합니다. 끝없고 중단 없는 사역을 할 제사장에 대한 희망은 히브리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희망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 18장의 레위 유언에 나타나며, 저자가 말했듯이, 영원히 세대와 세대를 거쳐 후계자가 없을 선하고 정의로운 대제사장을 기대합니다.

대제사장의 교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의지했던 중재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들의 직책에 동등하게 충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의 헬레니즘화 대제사장들, 제이슨과 메넬라오스, 신뢰할 수 없는 알키무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레위의 유언의 저자가 글을 쓸 당시 대제사장의 계승이 어느 정도 긴장이나 불안의 원천이 되게 했습니다.

신-인간 관계에 대한 이 직분의 중요성은 레위의 유언서 저자가 덕이 있고 안정적이며 불멸의 대제사장을 크게 바라는 선으로 여겼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아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불멸의 중보자의 이점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신성한 후원자와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할 중재자가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75년에 오니아스를 그의 동생 제이슨으로 교체한 것이 국가에 슬픔을 안겨준 것처럼, 충실하고 효과적인 중재자가 신뢰할 수 없는 중재자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신자들은 충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모든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은 5장에서 이미 시작된 제사장직에 대한 이전 논의의 주요 요점을 모아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거룩하고 흠 없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죄인과 구별되고 하늘보다 높여지신 분입니다. 그는 매일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한 번만 영원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약함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 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 이후에 나온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해진 아들을 세웁니다. 설교 초반에 저자는 죄인들과의 예수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수의 호의적인 성향, 동정심, 그리고 그의 고객들에 대한 그의 온유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저자는 예수의 중재의 다른 측면, 하나님과의 근접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를 하늘 위로 높여진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시편 110편 1절에 주어진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실제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저자는 예수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가 듣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가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예수와 레위 제사장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즉 흠 없는 거룩함과 끊임없는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설교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즉,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공유된 경험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공유된 경험에 뿌리를 둔 고객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예수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번만 제물을 바쳐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 시킵니다.

저자는 이렇게 레위 대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과 예수께서 하신 단 한 번의 희생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9장과 10장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며, 레위 희생의 반복적 성격은 히브리서 저자에게 그 희생의 효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은 이 논증의 부분을 또

다른 잘 구성된 대조로 마무리하며,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합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썼다. 저자는 예수의 중재의 우월성과, 따라서 이 대조의 각 지점에서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의 큰 이점을 강조한다. 첫째, 맹세의 말씀은 물론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언급하는데, 토라를 대체하지만 또한 하나님 편에서 더 직접적인 헌신, 즉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제직에 대해 취하신 개인적인 서약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사제직은 첫 번째 사제직과는 달리 틀림없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 첫 번째 사제직은 인간 당사자의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깨질 수 있었고, 저자에 따르면 깨졌다.

더욱이 이 사제직의 책임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은총을 구하는 신성한 후원자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후원자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중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아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은 사실상 성공을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죽음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이 인간들의 약함은 아들의 영원한 완전함과 대조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 예수에게서 가진 것의 가치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그들이 소수 기독교 집단과 동일시되는 한, 그들에게 없는 일시적인 혜택을 위해 그것을 던져버리려는 유혹을 덜 받게 할 것입니다. 저자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들의 시선을 재조정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벽하게 구원하고 틀림없는 중개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논의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초기 유대교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는 것을 속죄의 희생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속죄의

희생으로 기능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생각은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라는 인간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로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는 아이디어, 심지어 국가에 대한 신의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 바치는 아이디어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문학과 신화에서 잘 입증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2성전 기간 동안 초기 유대교에서 평행하게 발전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문화에서 그리스-로마의 대응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토착적인 유대 논리에 근거하여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킴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피와 생명의 교환이 죄를 덮는 것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나는 제단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생명으로서, 생명을 속죄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편과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동물 희생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발전하는 것을 관찰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피 묻은 제물보다 인간의 찬양이나 인간의 순종 행위 또는 죄에 대한 통회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 제사는 상한 영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이 기간 내내 희생적 언어를 다른 행위로 은유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건한 행위는 시편 14

1편 2절에서 숭배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 기도가 당신 앞에 향으로 여겨지고 제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로 여겨지게 하소서.

초기 유대교에서 순교자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두 번째 흐름은 신명기 자체의 언약 신학, 특히 27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명기적 신학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종으로 돌아오면 저주가 뒤집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됩니다 .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즉 피가 속죄를 위해 주어지고,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순종이 저주에 대한 국가의 경험을 돌이킨다는 생각은 헬레니즘화 위기 기간인 기원전 168년에서 166년경에 일어난 유대인의 순교자 죽음에 대한 초기 유대인의 해석에서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외경 중 하나인 마카비서 하권은 이 기간의 사건을 신명기적 용어로 해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도시와 그 엘리트 계층의 물질적 번영과 국제적 발전을 위해 예루살렘의 사제 엘리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스 도시로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유대인 엘리트의 상당수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적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인 제이슨을 지지하여, 보수적인 대제사장인 동생 오니아스 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 한때 권력을 잡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승인을 받은 제이슨은 토라를 정치적 헌법이자 국가법으로 제쳐두고 그리스식 헌법을 채택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정부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카비서 하권의 저자는 이를 최고 수준의 국가적 배교 행위로 해석합니다 .

그는 제이슨의 행동과 그를 지지했던 엘리트의 행동이 언약을 거부한 것이며, 그 뒤를 이은 몇 년 동안 국가에 닥친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믿는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와의 긴밀한 협력은 예루살렘

시에 재앙을 초래했다. 안티오쿠스는 여러 차례 성전 금고를 약탈하고 많은 시민을 학살했다.

이것은 토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의로운 유대인들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종교적 박해로 기억되는 것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셀레우코스 왕국의 보편적인 법을 지지하기 위해 토착법을 뒤로 하고 돼지고기 한 입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돼지고기 한 입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마카비서의 저자는 이러한 순교를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바친 순종의 제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대신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순종적인 죽음으로 인해 주님의 진노가 다시 은혜로 바뀌었다고 썼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아마도 1세기 이상 후에 4마카비서의 저자는 희생적이고 숭배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순교자들의 죽음과 그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는 첫 번째 순교자가 있었는데, 엘라자르라는 이름의 노인 사제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처벌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해주세요. 내 피를 그들의 정화제로 삼으시고, 그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순교와 그 나라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우위를 점하고 독립을 재확인하기 시작한 여파에 대해 논평하면서, 마카비서 4권의 저자는 폭군이 처벌을 받았고 조국이 정화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나라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실한 사람들의 피와 속죄 제사로서의 그들의 죽음을 통해, 신의 섭리는 이전에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보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성경적 전통, 즉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종의 노래를 가져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구자입니다. 굴욕과 소외, 심지어 죽음에 대한 경험은 종의 노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처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겪은 죽음, 즉 대리적 속죄라는 관점에서 재구성됩니다. 원래 맥락에서 노래의 의미가 무엇이든,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깨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명예롭게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고 신의 진노를 피하는 희생으로 묘사하는 독서에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고통받는 하인은 고통과 절단을 당합니다. 이 구절은 이 죽음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제물로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하인의 위대함과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인의 노래의 이 모든 요소는 마카비서 4장에서 순교자들을 바치는 것과, 그보다 약간 덜하지만 마카비서 2장 7장에서도 대응됩니다. 마카비서 2장과 4장에서 속죄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물로 받아들이시는 죽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맥락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충실함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에 약속된 저주를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속죄제에 관한 레위기의 희생 용어를 빌려,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끝까지 유지되는 대표적 순종이며, 따라서 중재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전통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받아들인 예수의 죽음의 중요성을 하나님과 더 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